

농민의 위생관 념 고칠점 없나



金 大 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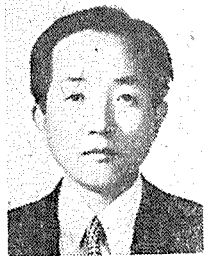
농촌사람들 중 환자가 많은 까닭은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질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위생관념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특히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능히 병고에 시달리지 않을 일도. 생활 환경의 불결, 질병에 대한 위생관념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병으로 고생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도시와는 달리 농촌은 대체로 50~60호 내외의 공동생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질병이 전염되면 그것이 번질 가능성도 크지만, 그러나 부락단위로 단합하여 병을 예방만하

면 촌락자체가 고립산재(孤立散在)해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방역이 쉬운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어떤 마을이든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이웃간의 내왕도 많고, 공동우물 이용도 있고 해서 신속히 병의 전파가 생기게 된다.

도시에서는 많은 경우 과소노동(過少勞動)에서 오는 질병, 예를 들자면 신경성질환, 위장병, 고혈압 등이 많지만 농촌에서는 과다노동(過多勞動)에 따르는 영양실조도 그 병인(病因)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도시민들은 지나친 신경과민에서 오는 긴장, 갈등, 불안이 그 원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농촌에서는 질병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 무지가 그 원인이 될 것이다.

농민들의 위생관념을 복돋아주기 위해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하는, 말하자면 우물개수, 하수도 구축, 변소 개량, 생활환경 정결 등과 함께 간의수도(簡宜



水道) 시설등도 그 일조가 될 것이다. 다행히 새마을운동이후 농촌에서는 전 농가의 83%가 하수구 개축, 공동목욕탕 16%, 57%가 간이급수 수도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이들 계획은 81년까지 모두 완성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 농촌의 생활환경은 크게 변화 발전케 될 것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들 모든 생활환경 개선도 그것을 통해 농촌의 보건·위생에 얼마나 이바지하게 되는가를 깨닫는 속에 더욱 촉진케 될 것이다. 이제 농촌에서도 미신은 타파돼가고 있고 따라서 무당을 통한 원시종교적 치유방법은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농촌에서도 무의촌이 사라지고 모든 농민이 손쉽게, 값싸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제도가 마련되면 농촌의 질병은 한결 줄어들 것이며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위생관념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필자=이화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기생충 박멸 표어

새마을 건설은
기생충 구제 부터

약물의 남용 (濫用) 버릇



禹 泰 河

옛부터 우리나라에는 신비스러운 효능을 가진 영약(靈藥)과 묘약(妙藥)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였다. 그래서 최초로 났은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秦始皇)도 거역할 수 없는 천수(天壽)를 연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사신을 보내어 불노장생의 영약을 구하게 하였으나 그 약을 다려먹기 이전에 흠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천혜를 타고난 좋은 약물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약을 숭배하고 절대시(絶對視)하는 경향이 있는듯하다. 다 죽어가던 사람도 약 한첩으로 거뜬히 치유가 되었다는 기적적인 얘기가 주